

'넥스트 액터 안재홍' 도서 출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 백은하 배우연구소,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안재홍 집중 조명

영화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2주간에 걸친 총 7일간의 영화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2021. 6.3.~6.6. / 6.11.~6.13.)가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을 정식 출간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시리즈는 한국 영화의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 배우들을 선정하여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배우 박정민을 시작으로, 2019년 배우 고아성이 바통을 이어받아 화제를 모았으며, 특히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도서 '넥스트 액터' 시리즈는 국내 영화 팬들에게는 애장서로, 배우들에게는 필독서로, 배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입문서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안재홍이 선정되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배우 안재홍을 집중 조명하는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이 오는 6월 3일 정식 출간한다. 이번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은 총 6개의 챕터로 나뉘어 그동안 작품에서 선보였던 안재홍의 다양한 얼굴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안재홍의 솔직 담백한 생각과 감독과 배우라는 두 개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길을 탐색 중인 배우 안재홍을 만날 수 있다.

<1999, 면회> '이승준'부터 <죽주왕> '홍만섭', [응답하라 1988] 김정봉, [쌈, 마이웨이] 김주만, <소공녀> '한술', <사냥의 시간> '이장호'에 이르기까지, 각 캐릭터를 연기한 안재홍의 남다른 소감과 생생한 촬영 비하인드가 안재홍의 유쾌하고 몽클한 필력으로 담겨 읽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백은하 소장이 비트라는 단위를 통해 탐구한 안재홍의 연기론, <1999, 면회> 김태곤 감독, <죽주왕> 우문기 감독, <소공녀> 전교운 감독이 모여 배우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을 정식 출간한다.

안재홍에 대해 나눈 대화들이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의 소장 가치를 높인다. 여기에 안재홍과 백은하 소장이 나눈 방대한 인터뷰까지 더해져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배우연구소를 운영하며 다년간 배우와 연기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온 백은하 소장은 "배우 안재홍은 어딘가 시대의 흐름과는 엇나간 매력을 가졌다. '순정', '죽심', '열정' 처럼 어느덧 촌스럽고 미련하다고 간주되어버린 단어들에 배우 안재홍 앞에 붙는 순간, 현재적으로 설득력 있는 수식이 된다"고 설명하며, "시대의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힘찬 배우 안재홍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웠고, 동시에 새로운 생태 통로를 찾아 헤매는 어느 배우의 치열한 탐색 과정을

만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프로그램은 도서 '넥스트 액터 안재홍' 출간과 함께, 6월 5일 안재홍 단편선 & MV 상영 후 진행되는 GV에 안재홍이 참석,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 전 기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저녁 19시까지 무주드너무운동장 옆 지남공원에서 '니가 알던 안재홍이 아냐'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안재홍의 속 깊은 인터뷰 영상부터 스페셜 이미지, 활동 소장품 등 안재홍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가 현장을 찾은 영화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무주=전문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대한민국 판놀음'

4-26일까지 명인·명무·명창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오는 6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원당 및 예음헌에서 다양한 창극과 명인, 명무의 무대로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을 개최한다.

4일 오후 7시와 5일 오후 3시에는 예원당(대극장)에서 개막공연인 '창극 춘향전'을 펼치며, 창극 춘향전은 지난 4월 초연되면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국립민속국악원의 2021년 대표 작품이다.

'별별창극'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의 국공립 및 민간단체의 작품으로, 공연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수요일과 토요일은 예원당, 금요일은 예음헌(소극장)이다.

'토크쇼'는 명무·명인·명창의 그 시절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10일은 명무 배정혜(풍류장고), 김은경(산조춤), 국수호(남무), 17일은 명인 김해숙(가야금산조), 최경민(취타풍류), 이태백(아쟁산조), 24일은 명창 왕기석(수궁가), 윤진철(심청가), 김일구(적벽가)의 무대로 구성했으며, 윤중강 국악평론가와 전주MBC 목서운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의 폐막공연은 '토크쇼'에 참여했던 명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무대로, 윤진철(적벽가), 김일구(아쟁산조), 국수호(생황산조춤), 왕기석·



박애리(입체창 심봉사 눈뜨는 대목),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 펼쳐지며, 고수로는 이태백 명인이 참여하고 사회는 박애리 명창이 맡는다.

관람은 7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과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선착순으로 예원당은 회당 200명, 예음헌은 회당 50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상반기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성료

한복도시 남원시가 특별 진행한 한복교육 상반기권이 지난 31일 임실 청운초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한복문화교육은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의 초·중학생 198명이 참여해 오전에는 실내에서 한복 옷차림 해보기, 인사 예절법 배우기 등 한복에 대한 이해와, 오후에는 광한투윌과 남원예촌에서 전통놀이, 마패조각 찾기 게임, 훈장님과 문재풀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한복의 가치와 전통문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지난 3월 남원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복교육을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김인수), 남원시관광협의회(위원장 윤영복)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동부권(남원, 임실, 순창 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디어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작가 공모

전주문화재단, 7월 15일까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미디어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 분야 신규사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주의 문화작품 홍보 및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를 책으로 접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느린 학습자 등의 문화 향유를 위함이다.

특히 이 사업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오디오북 제작에서부터 유통, 마케팅, 정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분야는 시, 시조, 동시, 동화, 소설(단편), 수필, 희곡이며, 원고 분량(200자 원고지 220매 내외, 띄어쓰기 포함 4만4,000 자)에 해당할 경우 1편 이상의 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작가의 소(小)작품집 형태의 오디오북이 제작되며, 총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전주를 연고로 활동 중인 문인(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 거주)이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기존의 종이책 발간

지원과는 다른 방식의 독서 인프라 구축을 꾀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상의 디지털 작품집 발간을 통해 다양한 독자층과 연결되고 있는 오디오북 시장 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모 기간은 5월 31일~7월 15일까지 총 47일 간 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rf_run@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70-7711-375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